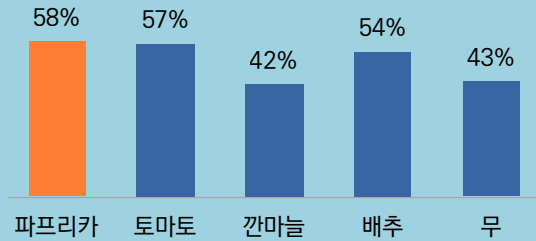


가뭄, 홍수, 폭염, 산불, 물부족,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.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불과 폭염, 집중호우를 경험하고 있다.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. 지난 8월 기준 파프리카 소매가격은 평년 동기 대비 58%, 토마토는 57%, 간마늘은 42%, 배추는 54%, 무는 43% 각각 무섭게 상승했다. 각 가정마다 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. <넘버즈>에서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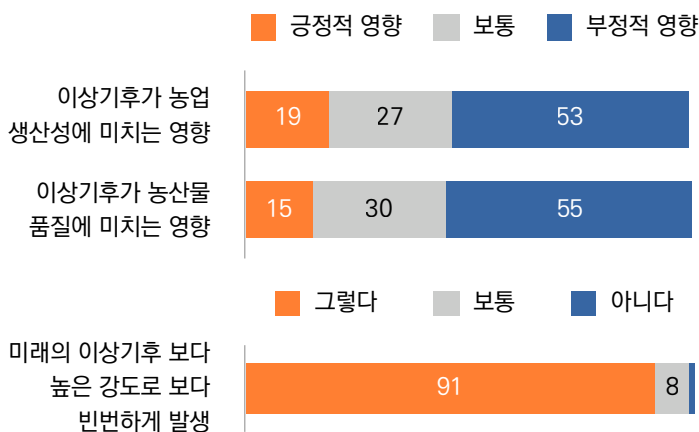
[그림] 주요 채소 가격 상승률 (2022년 8월 12일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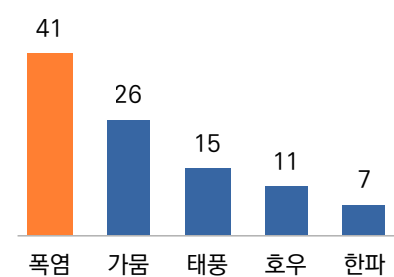
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, '앞으로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' 91%

- ▶ 농민들의 이상기후 인식을 살펴보면 '이상기후'가 '농업 생산성'과 '농산물 품질'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53%, 55%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, 긍정적 인식(농업생산성 19%, 품질 15%)을 모두 크게 앞질렀다.
- ▶ 대부분의 농민들(88%)은 현재 이상기후 현상을 느끼고 있으며,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(91%)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한편, 농민들은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로 '폭염'(41%)을 1위로 꼽았다.

[그림]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 (농업인 대상, %)**



[그림] 농업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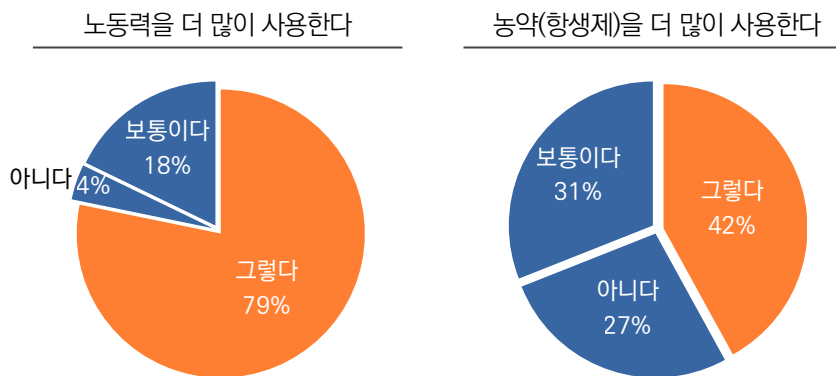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'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, 2019. 10(전국 715농가, 온라인 조사, 예비조사 2019.09.10.~15/본조사 09.17~30)

**5점 척도 질문으로 긍정/그렇다(매우+약간), 부정/아니다(전혀+별로) 비율임

◎ 이상기후 현상으로 '노동력/농약'을 더 많이 사용!

- ▶ 농민들에게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혹은 가축 질병 등의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'농약', '노동력' 사용이 평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질문했다.
- ▶ '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'는 응답률은 무려 79%에 달했고, 농약(항생제) 사용량을 늘렸다는 비율도 42%로 나타났다. 이상기후가 노동력과 농약 사용량 증가에 미쳐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이상기후 영향 인식**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'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, 2019. 10(전국 715농가, 온라인 조사, 예비조사 2019.09.10.~15/본조사 09.17~30)

**5점 척도 질문으로 '그렇다(매우+다소)', '아니다(전혀+거의)' 비율임